

## 한국 2022 월드컵 유치 실패 새로운 도전 ... “이젠 평창이다”

### 월드컵 2018년 러시아·2022년 카타르

월드컵 재유치에 실패한 한국이 평창동계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22년 월드컵 개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년 7월 발표되는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뮬러 원(F1) 그랑프리를 개최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앞두고 있다.

이미 하계올림픽과 동·하계 아시안게임, 한일 월드컵까지 개최했던 만큼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국제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내년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발표된다

한국은 강원도 평창을 내세워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된다. 경쟁

상대는 독일(빈헨)과 프랑스(안시). 앞서 한국은 두 차례 평창 동계올림픽을 노렸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국은 2003년 IOC 총회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를 당했고, 러시아 소치와 대결을 했던 2007년 1총회에서도 1차 개최지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2차 투표에서 47-51로 역시 역전을 허용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한국은 최근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이진희, 문대성 IOC 위원 등을 총동원해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 유치실패가 동계올림픽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일 스위스 취리히 메세넨트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회를 열고 카타르를 2022년 월드컵 최종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단독 월드컵 유치를 노렸던 한국은 결선 투표에도 오르지 못하고 카타르에 밀렸다. 1차 투표에서 최저표에 그친 호주가 가장 먼저 제외됐고, 2차에서는 일본, 3차에서 한국이 차례로 탈락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대회 성격이 다르지만 월드컵 투표 결과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요한 변수로 꼽혀왔다. 2014년 개최지 결선 당시 대구와 인천이 2011 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아시아게임 등 주요 대회의 개최권을 따낸 것이 평창에 악재로 작용했었다.

한국은 ‘1차 득표’ 전략을 내세워 유치전을 벌일 예정이다.

개최지 투표는 여러 후보 중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단계별로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유럽세에 밀리는 동양권 국가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IOC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위원은 모두 105명. 1차 투표에서 결판을 내기 위해서는 53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



이것이 허벅다리 걸기

왕기춘(파란색) 3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 KRA 코리아 월드컵 국제 유도 대회' 남자 -73kg 8강전에서 브라질 빅토르 페나베에게 허벅다리걸기 기술로 절반을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 최나연 16위·신지애 78위 ‘불안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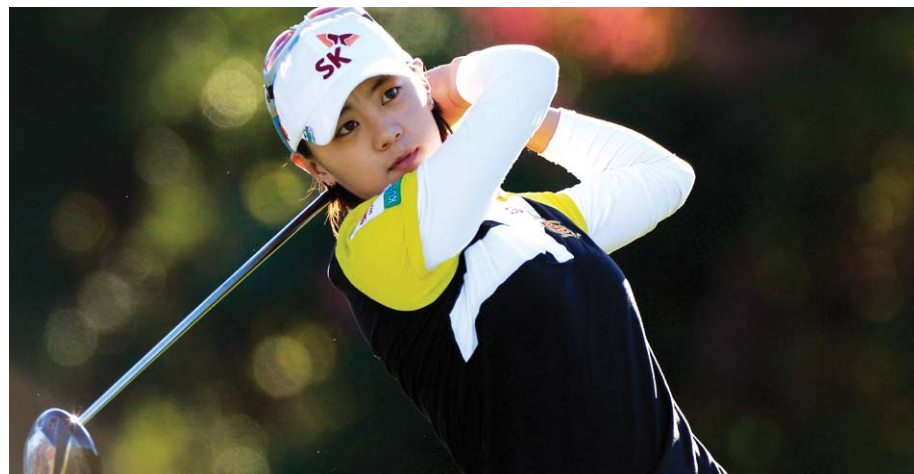
### LPGA 투어 챔피언십 첫날

2010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다관왕을 노리는 최나연(23·SK텔레콤)과 신지애(22·미래에셋)가 시즌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 첫날 불안한 성적표를 제출했다.

삼강왕과 평균타수 부문 1위를 달리는 최나연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그랜드 사이프레스 골프장(파72.6천 51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나연은 12번홀까지 4타를 풀이며 무서운 기세를 올렸지만 13번홀과 14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더블보기, 15번홀(파5)에서 보기를 적어내는 등 3개홀에서 무려 5타를 잃는 난조를 보였다.

반면 평균타수 부문에서 2위에 올라있는 크리스티 커(미국)는 1언더파 71타를 쳐 김송희(22·하이트), 지은희(24·PANCO)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라 최나연을 위협했다.



최나연이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 15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강왕과 함께 올해의 선수상을 노리는 세계랭킹 1위 신지애는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5개를 쏟아내는 부진에 빠져 공동 78위(5오버파 77타)로 떨어졌다. 2라운드까지 70위 안에 들지 못하면 컷

탈락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희영(21)과 이선화(24)가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치며 공동 선두로 나서 한국군단 5개 대회 연속 우승에 청신호를 쫓았다.

/연합뉴스

## 김응용 삼성 라이온즈 사장 퇴진

### 6년만에 고문으로 물러나 야구인생 계속

야구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프로야구단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김응용(69·사진) 삼성 라이온즈 사장이 3일 발표된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맞춰 퇴진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삼성 라이온즈 사장에 김인(61) 삼성 SDS 사장을 전보조치했다. 6년간 구단을 이끌어 온 김응용 전 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나 야구와 오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이진희 회장 자녀들의 3세 경영이 본격화함에 따라 사장단을 축소 혁신적으로 짜겠다는 삼성그룹의 계획에 맞춰 2선으로 물러났다.

1983년 해태 타이거즈 사령탑에 올라 프로 지도자로 입문한 김 전 사장은 2000년까지 해태를 이끌며 통산 9번이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밟고 ‘우승 청부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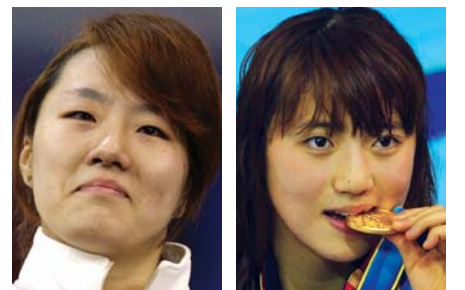
한국시리즈에서 LG를 물리치고 개인 통산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았다.

2004년 한국시리즈에서 9차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현대 유니콘스에 패해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패배를 경험했던 김 전 사장은 그해 말 삼성 지휘봉을 제자 선동열(47) 감독에게 물려주고 삼성 사장에 올라 야구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 MVP 이상화·신인상 정다래

### 윤곡 여성체육대상



이상화 선수

정다래 선수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상화(21·한국체대)가 제22회 윤곡 여성체육대상(이하 윤곡상)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한국여성체육회(회장 정현숙)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빙상 사상 최초로 여자 500m 금메달을 땀던 이상화를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경영 200m에서 감쪽 금메달을 수확했던 정다래(19·전남수영연맹)는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주치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062) 228-4711~2

Ve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 12월 24일 | 18:00-21:00
-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